

벤처기업 수도권 쏠림 심화...투자금도 80% 몰려

서울 1조3천526억...전남 21억 644백 자금 공급 VC·AC 역시 서울에만 집중 김원이 “지방 전용 벤처펀드 확대해야”



목포)이 1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전국 벤처기업 수는 3만7천419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2만4천533개(65.6%)가 몰려 있고, 비수도권은 1만2천886개(34.4%)에 그쳤다. 최근 6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 두드러진다. 2020년 수도권에 위치한 벤처기업 비중은 59.9%였는데 2025년 6월에는 65.6%까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수도권 벤처기업 수는 2만3천656개에서 2만4천533개로 3.71%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 벤처기업의 수는 1만5천856개에서 1만2천886개로 18.73% 감소했다. 문제는 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벤처캐피탈(VC)과 스타트업의 초기 성장 단계에서 멘토링, 네트워킹, 교육 등 빠른 성장을 돕는 액셀러레이터(AC) 역시 서울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2025년 6월 기준 벤처캐피탈은 전체 250곳 중 211곳(89.6%)이, 액셀러레이터는 전체 490곳 중 262곳(53.5%)이 서울에 위치해 있다. 이로 인해 지방 벤처기업은 자금, 인력, 노하우 등 성장 과정 전반에서 불리한 구조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투자금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벤처 투자금액 2조5천207억원 가운데 수도권에만 2조500억원(79.54%)이 집중됐다. 특히 서울은 1조3천526억원으로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반면, 투자금이 가장 적은 전남은 21억원에 불과해 서울과 무려 644배의 격차를 보였다. 광주 163억원이었다. 중기부는 모태펀드와 지자체, 지역 은행이 함께 조성하는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2027년까지

2조원 규모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벤처투자를 늘리기 위해 모태펀드 출자 비중을 최대 60%까지 확대하고 각종 인센티브로 민간자금 유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체감 효과가 미미하고 지원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원이 의원은 “지방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전용 모펀드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자금 지원에 더해 행정 서비스와 인재 유치까지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2조원 규모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벤처투자를 늘리기 위해 모태펀드 출자 비중을 최대 60%까지 확대하고 각종 인센티브로 민간자금 유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체감 효과가 미미하고 지원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원이 의원은 “지방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전용 모펀드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자금 지원에 더해 행정 서비스와 인재 유치까지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사열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 대연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열병차량에 탑승해 사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국민에 총 겨누는 일 결단코 안돼”

국군의날 기념사 “독립군·광복군 국군 뿌리”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결단코 되풀이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지난해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돌이켜보면 군이 사명을 갖고 사적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을 때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퇴행했다”며 “작년 12월 3일 일부 군 지휘관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최고 권력자의 편에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다행히 대다수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낸 덕분에 더 큰 비극과 불행은 막았지만 그 후과는 실로 막대하다”며 “민주주의 퇴행, 민생경제의 파탄, 국격 추락으로 국민이 떠안아야 했던 피해는 산술적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군이 민주공화국의 군이자 국민의 군대로 새롭게 태어나는 길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군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며 “우리 군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오고 있는 주한미군과 유

엔사 회원국 장병계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77번째 국군의 날이지만 우리 군의 역사는 그 이전부터 시작됐다”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군과 광복군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자 근간”이라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독립군과 광복군은 유린당한 나라를 되찾는 데 앞장섰고 마침내 연합군과 함께 광복을 이루는 주역이 됐다”며 “주권을 되찾고, 국민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구국의 정신이 우리군이 지켜야 할 고귀한 사명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진수 기자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연내 출범 가능성

시·도의회 의장 사무소 위치 등 합의

시·도 간 이견으로 연내 출범 무산 우려가 제기됐던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이 예정대로 올해 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양 시·도의회 의장이 규약 초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기 때문이다. 1일 광주시·전남도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과 김태준 전남도의회 의장이 광역연합 규약에 대해 합의, 양 시·도의 특별 광역연합 연내 출범 가능성에 불씨를 살렸다. 광역연합이 올해 출범하려면 시·도의회가 규약과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을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광역연합 사무처 위치와 연합의회 의장 자격을 시·도의회 의장으로 제한할지 여부를 놓고 이견이 노출돼 규약 제정을 위한 행정

예고를 하지 못했다. 이에 시·도의회 의장은 사무소 위치를 기존 광주 또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나주시)에 설치하는 안을 철회하는 대신, 전남 설치 내용을 규약에 명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전남 내 사무소 위치는 규약 제정 후 후속 협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또한 연합의회를 양 시·도의회에서 각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하고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두는 안이 제시됐다. 의장은 연합의회 의원 중 선출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질의를 거쳐 좁혀졌다. 시·도의회 의장 간 합의안이 도출된 만큼 광주시는 행정예고를 서둘러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의회 임시회에 긴급안건으로 상정, 처리할 계획이다. 전남도도 오는 15일 도의회 본회의까지 의원들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재성·변은진 기자

대선 기간 민원 359건 중 134건 완료

정준호, ‘경청 노트’ 취합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국도교통위원회·광주 북갑)은 1일 ‘경청 노트 캠페인’ 취합 결과를 발표했다. ‘경청 노트 캠페인’은 정 의원의 국회의원 선거공약이었던 ‘골목형 리스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현장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정 의원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광주 북구갑 지역위원회 핵심 당직자와 핵심 당원들과 함께 지역 곳곳을 돌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적극 경청하고 민원 내용을 수집해 정리해 왔다. 이 기간 중 북구갑 지역에서 수집된 민원은 총 359건이다. 정책 반영 검토 93건, 단기 처리 민원 62건, 장기 처리 민원 64건, 민원인 재경청 6

건, 현장 확인 및 완료 처리된 건은 134건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처리 민원(시급 처리 민원)은 3선거구(종화동, 두암1·2·3, 문화동, 석곡동)의 민원이 총 43건 중 19건 처리돼 가장 많이 해결됐다. 1선거구(임동·중흥동·중흥1동·중앙동·신안동)에서는 총 32건의 민원이 접수돼 4건이 완료됐고, 19건을 추진 중이다. 2선거구(우산동, 오치1·2동, 문흥동1·2동) 역시 4건의 주민 건의 사항이 완료됐고 7건을 해결 중이다. 정준호 의원은 “골목골목을 돌며 지역 주민들의 삶 속에서 고통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민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원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